

그리스도가 필요한 다윗과 모든 인간들

-복음으로 여는 사무엘하-

사무엘하 24:1-10, 로마서 3:23-24

정윤돈 목사님

“전지전능하셔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되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기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갈 때 가장 행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해주시는 것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서 불신앙하여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서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가지고 이제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다가 천국갈 수 있는 축복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시며 특별히 강단메시지가 나의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어서 교회를 살리며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구약 성경 중 사무엘하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한다. 사무엘하는 사무엘상과 같이 다윗 왕과 그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있다. 사무엘하를 보면 한마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현상과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불신자 상태 6가지를 그대로 볼 수 있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 사무엘하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단한 엘리트, 군인, 정치인인데 그들은 모두가 흑암, 혼돈, 공허에 빠져있고 사탄의 울무, 틀, 함정에 빠져 있다는 것을 발견 할 수 있다. 이런 엘리트들을 살리는 것이 바로 지교회이다. 복음만이 이들을 살릴 수 있다. 또, 이런 엘리트들 살릴 미래의 램넛트들을 키우는 미션홀을 해야 한다. 그것이 237 이고, 치유이며 서밋사역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서 미리 보고, 찾고, 누리고, 정복하고, 성취해야 하는 것이다. 증인이 되면 전도가 어렵지 않고 복음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리기 위해 성경을 잘 알아야 한다.

1. 첫 번째에서는 사무엘하에 나오는 몇 명의 엘리트 인물들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한다. 이들은 모두 세상적으로 대단한 인물들이지만 하나님을 떠나 복음을 상실한 인간들의 원초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1) 첫 번째 인물은 아브넬 장군이다.

① 아브넬은 사울 왕의 장군 중 최고가는 장군이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죽은 후,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다. 사무엘하 2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다. ‘사울의 군사령관 벨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르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② 그런데 아브넬은 사울 왕이 죽은 후 권세를 얻게 되자 사울왕의 첩들과 통간을 하게 된다. 이를 알고 사울 왕의 아들인 이스보셋 왕이 아브넬을 꾸지람을 하자, 오히려 이스보셋을 저주하고 협박하였다. 사무엘하 3장 6절에서 11절 중 특히 7절에서 8절을 보겠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공동번역 : ‘나를 개대거리로 아시오?’)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공동번역 : ‘하찮은 여자 일로 나를 책잡으시오?’)’ 그러자 사무엘하 3장 11절에 보면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 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나와 있다. 인간들은 권력을 쥐게 되면 부도덕하고 타락하고 교만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높은 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수준, 표준, 기준이다. 권력을 잘못 사용하면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됨을 알아야 한다. 이 세상에서 성공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 성공과 축복을 바로 사용하지 못하면 사탄의 울무, 틀과 함정이 되어 끌려 다니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준, 수준, 표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의 배경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항상 섬기고 겸손하며 여유가 있어야 한다. 두려워할 것도, 조급해할 것도, 교만할 것도 없다.

(2) 두 번째 인물은 요압장군이다.

요압은 다윗 왕의 대표적인 장군이었다. 그런데 요압장군은 자기의 동생 아사헬에 대한 복수 때문에 다윗 왕의 명령도 무시하고 아브넬을 유인하여 찢어 죽였다. 사무엘하 3장 27절에 그 장면이 나와 있다. 아사헬도 요압장군 못지않게 대단한 장군이었던 것 같다. 사울의 부하들과 다윗의 부하들이 우연히 만나게 된다. 다윗의 부하들이 사울의 부하들을 찢어죽이자 아브넬이 도망가게 된다. 그 중에 요압의 남동생인 아사헬이 끝까지 추적한다. 결국 아브넬이 창으로 찢려서 아사헬이 죽게 된다. 아브넬은 나중에 이스라엘 장로들을 설득하여 다윗을 왕으로 밀기로 협약을 맺고, 다윗 편에 서려고 한다. 이 모습을 요압장군이 본 것이다. 그래서 몰래 아브넬을 불러내서 아브넬을 죽이게 된다. 사무엘하 3장 27절이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찢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다’ 우리가 완전복음이 안되면 이런 실수를 계속하게 된다. 인간들의 역사를 보면 전쟁과 다툼과 복수의 역사인 경우가 많다. 그런데 사무엘하에 보면,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다윗의 세 용사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다. 그들의 이름은 요셉맛셋, 엘르아살, 삼마이다. 이 세 명의 용사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역할을 하였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데 조용하고 중요하게 큰 공헌을 한 인물들이었다. 이들은 다윗이 지나가는 말로 베들레헴의 물을 먹고 싶다고 이야기하자 사무엘하 23장 16절에서 17절에서 이들은 베들레헴에 잠입해서 다윗에게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떠온 사람들이다. 당시 베들레헴은 블레셋 군대가 주둔하고 있던 적진의 중심지였다. 이 사건을 복음적으로 해석하면 이 세 용사는 그리스도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가서 목숨을 걸고 생명의 물을 길러온 충성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이 단순한 내용 속에서 언약과 영적 깨달음을 발견할 수 있다. 생명 건 헌신이 아니고는 이 생명수를 가져올 수 없다. 요압장군은 이름은 널리 알려져 있었지만 참 복음을 위해 생명 건 헌신을 하지는 못했던 사람이었다. 많은 설교 중 스쳐 지나가는 중에서도 생명수와 같이 언약의 메시지가 있다.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 세 명의 용사는 그런 영안, 눈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깐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지혜로운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3) 다음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다.

① 압살롬은 너무나도 잘생긴 남자다운 사람이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이름다움으로 크게 칭찬 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말한다.

② 그러나 누이 다말을 욕보인 이복형제 ‘암논’을 유인하여 자기의 종들을 통해 죽였다. 사무엘하 13장 28절 중간에 보면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라고 기록되어 있다. 우리는 지극히 선한 선택을 해야 한다. 완전복음, 완전복음의 체질이 되어야 한다. 복음을 깨달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오직’하면 확신을 가질 수 있다. 그것만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완전복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전해야 한다.

③ 그리고 압살롬은 정당하지 않은 술책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았다. 사무엘하 15장 2절에서 6절이다.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들인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

그 사람의 대답이 좋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네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 계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흠치니라' 인본주의를 쓴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사람에게 잘 보일 필요 없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쓸 필요가 없다. 그러나 겸손하고 자기의 역할을 잘 해야겠다. 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환심을 사기 위해 간사한 방법을 쓸 필요가 없다. 현장에서는 이런 사람이 대부분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수준, 표준으로 다 바꿔야 한다. 조급하고 못 기다리기 때문에 축복을 다 놓친다.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해야한다. 영적인 힘을 얻어야 그 문제를 보고 이길 수 있다.

④ 압살롬은 그는 아버지 다윗 왕을 대적하여 왕위를 빼앗으려하였다. 이 때문에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기까지 하였다. 사무엘하 15장 14절을 보겠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찢까 하노라' 이 모습을 보면 다윗 왕의 인격과 아버지로서의 사랑을 알 수 있다. 알마든지 이길 수 있는데 피해준다. 복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 장면을 보면 돈과 권력에는 부모, 자식도 형제도 없는 것이 세상임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성령충만하고 완전복음이 되지 않으면 마귀에게 속기 쉽다. 그래서 가족들이 모두 완전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재앙의 통로가 될 수 있다.

⑤ 그러나 결국 압살롬은 자랑거리였던 긴 머리가 나무에 걸려 요압장군에 의해 죽게 된다. 사무엘하 18장 9절에 그 장면이 나온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리매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이와 같이 사무엘하에 등장한 대부분의 내용들과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복음을 상실하여 결국에는 재앙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의 잘못된 원초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들은 모두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2.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다윗 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다윗 왕은 그리스도의 모형이지만 그리스도는 아니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어린 시절과 청년시절에는 훌륭한 믿음을 보여 주었지만 결국, 다윗도 다른 사람들처럼 죄와 불신앙에 빠지고 말았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하에 나오는 두 가지 이야기이다.

(1) 첫 번째는 다윗이 왕이 된 후, 남의 부인을 빼앗고 살인까지 한 사건이다. 그 부인의 이름은 밧세바였고 남편은 충성된 장군 우리아였다. 다윗은 어느 날 왕궁에 있을 때 밧세바를 보게 된다. 사무엘하 11장 2절에서 5절이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 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느니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헛 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이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며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임신의 소식을 들은 다윗은 밧세바가 임신한 것을 숨기기 위해 전쟁터 전방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서 술을 먹고 집에 가도록 했다. 그러나 우리아는 집에 들어가서 자지 않고 집 앞에서 자게 된다. 이에 당황한 다윗 왕은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방으로 보내라는 조서를 상관에게 보내어 우리아를 전사하게 하였다. 다윗은 최고로 충성된 용맹한 부하를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죽게 만들었던 것이다. 이것은 오늘 날 지도자들의 모습이며,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는 '기록 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용서와 말씀이 필요한 것이다.

(2) 두 번째로 다윗의 대표적인 죄와 불신앙은 인구수를 센 것이다. 소년시절 혼자서도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를 이겼던 다윗이었지만 언약과 믿음이 약해지자 불신앙을 선택하였다. 사무엘하 24장 2절에 보면 요압에게 인구조사를 명령한다.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이때 요압장군은 사무엘하 24장 3절에 다음과 같이 반대를 하였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백 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언약과 믿음이 떨어지면 계산을 하게 되는 것이다. 모든 일을 객관적으로 해야 한다. 어떤 일을 선택할 때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며 성령인도를 받아야 한다. 이 장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것을 선택할 때는 단지 세상적인 계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윗 왕이 인구계수를 재촉하자 요압과 사령관들은 인구를 조사하기 위해서 물러가게 된다. 사무엘하 24장 4절이다.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9개월 20일동안 인구를 조사한 후 다윗은 인구계수에 대한 최종보고를 받았다. 북쪽 이스라엘에는 80만, 남쪽 이스라엘에는 50만, 총 130만 명이 칼을 들 수 있는 인구였다. 그런데 다윗은 마음에 자책하고 하나님께 회개를 하게 된다. 사무엘하 24장 8절에서 10절이다. 그 중 10절에,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다른 사람과 달랐던 것은 잘못했지만 그 후에 즉각적으로 회개를 했다는 것이다. 다윗이 이렇게 즉시 회개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죄를 자백하면 그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완전복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다윗은 보고를 받자마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한편, 반대로 하나님께 불신앙해서 죄송스런 마음이 많았다. 다윗도 오직 언약과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그런데 왜 다윗은 왕이 된 후에 또 나이가 들면서 믿음이 변질되었을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끝까지 변하지 않고, 쓰임 받을 수 있을까?

1. 다윗이 변질된 이유는 렘넌트 때 받았던 언약의 말씀을 잃어 버렸기 때문이다. 언약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창3장, 6장, 11장의 틀린 성공, 창세기 13장, 16장, 19장의 무숙, 점술, 우상이라는 틀린 방법을 쓰고 결국 불신자상태 6가지의 틀린 인생을 살게 된다. 그래서 복음과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이 중요하다.
2. 성전과 예배와 강단 말씀을 놓쳤기 때문이다. 이것을 놓치면 잘못된 CVDIP와 세상적인 잘못된 계획과 성공을 따르게 된다.
3. 오직을 놓쳤기 때문이다. 다윗이 복음을 알면서도 타락한 이유는 왕이 된 후에 문제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때 사람들은 오직 그리스도를 놓치게 된다. 죽음의 위기 때에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 보았다. 그러나 풍요롭고, 편해지자 오직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다.
4. 오력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력을 위해 24시간 기도하면 25시와 영원한 응답을 얻게 된다. 충만하지 않고 언약 해졌을 때, 사탄이 역사하게 된다. 실수하게 된다.
5. 또한 말년에 다윗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사용하는 방법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과 청년시절에 너무나도 훌륭한 믿음을 보여주었던 다윗도 이러한 영적인 축복을 놓쳤을 때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 성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영적인 축복을 놓치지 않고 날마다 누리다가 끝까지 쓰임 받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기를 축원드린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걸어가야 할 바, 깨달아야 할 바, 적용해야 할 부분을 알려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세상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